

최지민 '마운드 특급 루키' 계보 잇는다

KIA 스프링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최지민이 '마운드 특급 루키' 계보 잇기에 나섰다.

KIA는 2020시즌 정해영, 2021시즌 이의리가 지 2년 연속 루키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마운드 강팀으로 도약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강릉고 출신의 좌완 최지민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6cm의 체격을 갖춘 최지민은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기대주다. 최지민은 또 다른 좌완 강병우, 사이드암 김찬민과 함께 프로 첫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 최지민은 팀의 첫 연습경기가 진행된 22일에도 마운드에 올라 실력을 점검받았다.

최지민은 두 번의 피칭에서 모두 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디펜션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았다.

최지민은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선배님들과 운동할 수 있는 것에 설렘도 있었는데 막상 같이 하니 재미있기도 많이 즐거웠다"며 "TV에서 많이 보던 선배님들, 유명한 선배님들이랑 훈련하니 영광이다. 신인 첫해부터 캠프 드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걸 배운 것 같다"고 캠프 중간 평가를 했다.

최지민은 라이브·연습경기에 대해서도 긴장감보다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프로에 있는 형들이나 선배님들 다 잘 치는 타자여서 좀 더 집중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마운드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긴장감보다는 즐거움이 많은 것 같다"며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던지고 싶은 생각이었다. 타자들 보기에는 늦게 팔이 나온다. 디펜션 동작이 좋다. 나도 몰랐었는데 타자들이 공이 잘 안 보인다고 그

강릉고 출신 186cm 좌완 투수 "1군 무대에서 던지며 경험 쌓고 신인왕까지 해보고 싶다"

랬다"고 언급했다.

'즐겁게' 프로 타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최지민을 긴장하게 한 선배도 있었다. 최지민의 프로 첫 라이브 상대가 나성범이었다.

최지민은 "처음 (마운드) 올라가는데 나성범 선배님 타석에 들어서서 무섭기는 했는데 과감하게 던지니까 잘 잡은 것 같다"고 웃었다.

빠른 슬라이더에 자신 있는 최지민은 캠프 기간 체인지업을 연마하고 있다. 물론 양현종에게도 체인지업을 물어봤다.

최지민은 "어떻게 던지는지와 그립 같은 것도 물어봤는데 되게 잘 알려주셨다"며 "그립은 나에게 맞는 걸 계속 찾고 있다. 선배님이 작구 모션이랑 같은 팔 스피드로 나와야 타자들이 속는다고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재웅 코치와는 팔 각도를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최지민은 "나와야 하는 포인트보다 팔이 많이 낮다고 하셔서, 제대로 된 포인트로 던지려고 팔을 올리라고 하셨다. 던질 때마다 계속 의식하면서 던지고 있다"며 "또 킥 들고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뒤에서 던지라고 하셔서 그 부분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드'도 최지민이 신경 쓰고 욕심내는 부분이다.

최지민은 "웨이트도 많이 하고 트레이너 코치님들이 잘 트레이닝 해주셔서 힘이 붙었다. 힘이 붙다 보니까 구위가 괜찮아졌다"며 "스피드는 145km 정도까지는 던지고 싶다. 빠른 선수들이 살아



최지민

남는 것 같아서 스피드를 생각하고 있다. (이)의 리형하고 (정)해영이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웨이트 열심히 하고, 시즌 때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웨이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리와 정해영 두 선배처럼 KIA의 '셋별'로 1군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게 최지민의 바람이다.

최지민은 "2년 동안 그런 형들이 나왔는데 저도 두 형처럼 꾸준히 팀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일단 1군 무대에서 던지면서 경험을 쌓고 싶고, 좀 더 나아가자면 신인왕까지 해보고 싶다"고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시즌 첫 승 사냥 나선다

27일 대전하나시티즌 상대 전남, 내일 김포와 홈 개막전

개막전에서 '쓴 보약'을 마신 광주FC가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2라운드 홈경기를 벌인다.

광주는 앞서 시즌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FC에게 1-2 패배를 기록했다. 쓴 패배였지만 광주에는 좋은 공부가 됐다.

감독 데뷔전에 나섰던 이정호 감독은 예상과 다른 결과에 전만 41분과 후반 17분 과감한 교체카드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계속하겠다"며 광주만의 전력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 번의 실점 장면 모두 광주의 실수가 발미가 됐다. 점이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은 승부로 후반 43분 이견희가 만회골로 분위기를 살린 건 고무적이다.

첫 무대를 통해 팀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한 광주는 두 번째 경기에서 '강적'을 만난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대전이 광주를 찾는다.

대전은 지난 2020년 기업구단으로 전환한 뒤 K리그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지난 시즌에는 승격 문턱까지 가면서 강팀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라운드에는 휴식을 취하며 광주의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는 대전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광주는 강팀에 강했다. 지난 시즌에도 K리그에서 전복했다. 울산현대 등 우승팀에 물러서지 않는 투혼의 승부를 펼쳤다.

대전은 승격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기도 한만큼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묶고, 빠른 역습과 빌드업으로 승리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격의 핵심 헤이스와 엄지성이 개막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후반 투입된 플레이메이커 김종우의 패스도 매서웠다. 좋은 슈팅으로 광주의 시즌 1호골을 장식한 이견희도 든든하다.

프로 데뷔전에서 공수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유스 출신의 '루키' 정호연은 광주의 새 전력으로 눈길을 끈다.

광주가 패배를 보약 삼아 대전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기를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안방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전남은 26일 오후 1시 30분 김포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는다. 앞서 안양 원정을 통해 2022시즌을 열었던 전남은 0-1 패를 기록했다.

아쉬운 패배에도 전남은 지난 시즌과는 다른 화력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키웠다.

안양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빌드업으로 볼 점유율과 슈팅 수를 높여갔고, 후반 시작과 함께 발로로테라와 정호진을 투입해 공세를 강화했다.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전남은 달라진 공격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초반 흐름이 중요하다. '신생팀' 김포는 K리그에서 내려온 광주를 상대로 프로 첫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다. 패기의 상대지만 경험이 부족한 만큼 전남이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홈개막전을 앞둔 전경준 감독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더욱 세밀한 공격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 풀리네" 24일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토트넘 홋스퍼와 버리의 경기에서 손흥민(앞)이 버리의 코너 로버츠와 볼을 다루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의 0-1 패배를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

"아깝다. 골대!"

손흥민·케인 침묵 ... 토트넘, 강등권 버리에 0-1 '덜미'

프리미어리그 13R 순연 경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은 프리미어리그(EPL) 강등권 버리에 덜미를 잡혔다.

손흥민은 24일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버리와 2021-2022 EPL 13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20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6라운드에서 2개의 도움으로 팀의 3-2 승리에 힘을 보탤던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 이어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선발 공격진을 이뤘으나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EPL 정규리그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케인과의 EPL 역대 최다 37골 합작을 모두 다음 기회로 미뤘다.

지난 맨시티전 승리로 리그 3연패에서 탈출했던 토트넘은 이날 후반 26분 벤 미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한 채 0-1로 저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반면 버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3-0으로 완파하고 리그 11경기 무승(7무 4패)에서 탈출한 데 이어 연승을 달렸다.

토트넘과 버리의 13라운드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미뤄지면서 이날 열렸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홈 팀 버리가 초반부터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촘촘한 수비로 몰아붙였다. 맨시티전에 이어 원정길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엔 힘을 아끼며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보냈다.

후반전을 시작하며 토트넘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후반 2분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획득해 직접 차출된 프리킥이 케인의 등 쪽에 맞은 걸 상대 니코포프 골키퍼가 쳐 냈다. 후반 15분엔 케인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토트넘은 후반 20분엔 루카스 모라를 투입해 기세를 이어가려 했으나 후반 2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일격을 당했다. 브라운힐의 오른쪽 측면 프리킥에 이은 골 지역 왼쪽 미의 헤딩 슈팅이 골 그물을 흔들며 0의 균형이 깨졌다.

/연합뉴스

MLB 구단들, 정규시즌 일정 축소 압박

구단 "3월 1일 협상 데드라인"

선수 연봉 감액 압박카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구단 측이 "3월 1일(한국시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규시즌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선수노조를 압박했다.

AP통신은 24일 "주피터 협상" 사흘째, 구단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예정대로 정규시즌을 개막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정규 시즌 일정 축소는 선수의 연봉 감액을 뜻하는 압박카드다.

노사 모두 한국시간으로 4월 1일 정규시즌 개막을 원한다.

선수노조는 일정 축소와 '협상 데드라인'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4월 1일 개막을 위해서는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MLB 노사가 협상 속도를 높이면, 협상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24일에는 뉴욕 양키스 에이스 게리 콜과 볼펜 투수 잭 브리던 등이 협상에 참여했다. 맥스 셔저·프란시스코 린도어(이상 뉴욕 메츠)는 '주피터 협상' 첫날이 22일부터 선수노조 대표 일원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동안 뉴욕에 위치한 커미셔너 사무국과 선수노조 소속에서 협상했던 MLB 노사는 22일부터 스프링캠프 훈련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댄스타디움으로 이동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구단 측은 최저연봉 수정안을 내놨다.

AP통신은 "구단 측이 2022년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을 64만달러로 올리고, 2026년까지 매년 1만달러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안과 비교해 올해 최저 연봉만 1만달러 올렸다.

선수노조가 요청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선수노조는 23일 2022시즌 77만5000달러, 이후 매년 3만달러씩 상승해 2026년에는 최저연봉을 89만5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구단 측 수정안에 따르면 2026년 최저연봉은 68만달러로 선수 요구안보다 21만5000달러나 적다.

/연합뉴스